	보도자료 ○○○○○○○○○○○○		보도 시점	'06. 12. 1(금)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06. 11. 30	매 수	총 10매
과학기술부	담 과학기술정책국 당 종합기획과	과 장	강영철	02) 2110-3760 011-9721-7657		
정책홍보 담당관실		사무관	이주완	02) 2110-3766 019-270-6574		

미래 유망기술과 국가기술혁신의 신지평 모색

12.1(금)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에서 제2회 「미래 과학기술혁신 국제포럼」 개최
 UN미래포럼 회장 글렌 박사 “국제 과학기술기구(ISTO) 신설 필요”
 NIS 창시자 룬드발 박사 “NIS는 인도, 중국, 리스본 전략의 키워드”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출범 2주년에 즈음하여 미래 유망기술을 전망해 보고 국가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1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2회 「미래 과학기술혁신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에 개최되었던 제1회 「미래 과학기술혁신 국제포럼」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서 지난해의 주제 “글로벌 미래기술예측 활동과 국가기술혁신 전략”을 보다 구체화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이미 아르헨티나, 핀란드 등 7개국의 대사를 포함하여 14개국의 주한 외교공관 소속 15명의 외교관이 사전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선진한국의 기술혁신전략을 모색하고자 "Perspectives and Strategies for the Future: Emerging Technologies and NIS"를 모토로 개최하는 이번 국제포럼에는 UN대학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책임자이자 UN미래포럼 회장인 제롬 글렌 (Jerome Glenn, 사진) 박사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폴 웨보스

(Paul J. Werbos,) 박사, 국가혁신체계(NIS)의 창시자이며 체계적인 확립자인 덴마크의 벵트 오케 룬드발(Bengt-Åke Lundvall, 사진) 박사, 일본 정책연구대학원의 후지오 니와(Fugio Niwa) 박사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과 저명인사들이 참가한다.

이들은 다가올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기술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金雨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세계화, 개방화로 글로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짐에 따라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이 시대에 이번 국제포럼이 우리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밝힐 예정이다.

「미래 유망기술 전망」을 주제로 하는 세션 I (Emerging Technologies)에서 UN미래포럼 회장 제롬 글렌(Jerome Glenn) 박사는 「미래 과학기술 예측 이슈 관리」라는 제목의 발제연설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 과학기술기구(ISTO), 다보스 포럼과 같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포럼, 국제적인 과학기술 펀드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서 미국 국가과학재단(NSF)의 폴 웨보스(Paul J. Werbos) 박사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새로운 국제 리더십을 위한 기회들」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와 알콜-가솔린 복합연료탱크 등 대체에너지 전망과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 등에 대해 발표한다.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전략」을 주제로 하는 세션 II (National Innovation System)에서 덴마크 올보르 대학의 벵트 오케 룬드발(Bengt-Åke Lundvall) 박사는 「혁신시스템 연구와 정책」이라는 발제연설을 통해 과학분야로부터 시작된 혁신연구가 생산, 조직 등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을 조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고급인력 지원,

우수한 성과의 확산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혁신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룬드발 박사는 또한 NIS가 리스본 전략과 인도,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의 키워드라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의 후지오 니와(Fugio Niwa) 박사는 「일본국가혁신시스템의 목표분석」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국가혁신 시스템의 목표와 구조, 일본의 국가혁신 시스템의 다섯 가지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한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국제포럼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미래기술예측활동과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운용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참고자료) :
1. 행사 개요.
 2. 행사 세부일정.
 3. 발표 내용 요약.
 4. 외국 연사 약력.

[참고1]

< 행사 개요 >

- 행사명 : 제2회 「미래 과학기술혁신 국제포럼」
(The 2nd International Forum on Technology Foresight & National Innovation Strategies)
- 주 제 : 「Perspectives and Strategies for the Future:
Emerging Technologies and NIS」
 - 세션 I : 미래 유망기술 전망
(Technology Foresight Session: Emerging Technologies)
 - 세션 II :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전략
(Technology Innovation Session: National Innovation System)
- 일 시 : 2006. 12. 1(금), 09:00~17:00
- 장 소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다이아몬드홀(B1)
- 주 최 : 과학기술부
- 주 관 : KISTEP
- 후 원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매일경제, IBM
- 좌 장
 - 세션 I : 금동화 KIST 원장
 - 세션 II : 정성철 STEPI 원장
- 공식언어 :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참고2]

< 행사 세부 일정 >

시 간	내 용	
09:00 ~ 09:30	등 록	
09:30 ~ 09:40	개 회 사	유희열 원장(KISTEP)
09:40 ~ 09:50	기 념 사	김우식 부총리(과학기술부)
09:50 ~ 10:00	축 사	임인배 의원(과정위 위원장)
10:00 ~ 10:20	Coffee Break	
Session I : 미래 유망기술 전망		
10:20 ~ 11:40	< 주제발표 > Dr. Jerome Glenn (Director of the Millennium Project) Dr. Paul J. Werbos (Program Director of NSF)	
11:40~12:00	Coffee Break	
12:00 ~ 12:30	< 패널토론 > 금동화(KIST 원장, 좌장) 강신영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이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울프 네바스 (Ulf Nehrbass)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 전길환 (바텔 코리아 고문)	
12:30 ~ 12:50	< 질의 응답 >	
12:50 - 14:00	Luncheon (한국IBM 후원)	인사말: 이휘성 사장 (한국IBM) 건배사: 임상규 혁신본부장
Session II : 국가기술헌신체계 구축 전략		
14:00 - 15:20	< 주제발표 > Dr. Bengt-Åke Lundvall (Professor of University of Aalborg) Dr. Fugio Niwa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교수)	
15:20~15:40	Coffee Break	
15:40~16:20	< 패널토론 > 정성철 (STEPI 원장, 좌장)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대표이사 사장) 김병식 (동국대학교 부총장) Mr. Klaus Herzog (독일 대사관 과학기술참사관) 남정태 (IBM Korea Ubiquitous 연구소장)	
16:20~ 16:40	< 질 의 응 답 >	
16:40 - 17:00	정리 및 폐막	

< 발표 내용 요약 >

◆ Session I : 미래 유망기술 전망

□ 제롬 글렌(Jerome Glenn) 박사

- Future Science and Technology Foresight Issues Management -

- 과학기술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들은 가속화의 속도로 인해 스스로를 변화시킴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난 25년간의 변화는 앞으로 올 25년에 비해 느리게 느껴질 것임
- 미래 과학기술은 위험성이 매우 커서 범세계적 규정을 필요로 함
 -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과학기술을 위축시키고 진보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모순의 해결을 위해 국제 과학기술기구(ISTO), 과학기술 포럼 등의 신설과 국제 과학기술펀드의 설립이 필요
 - 투명도, 피드백, 결과의 명쾌함과 우수성을 통해 스스로의 규정권한을 창출

□ 폴 웨보스(Paul J. Werbos) 박사

- Opportunities For New World Leadership in S&T -

-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아주 심각한 상황임
 -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25년 경, 인류는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알콜과 석유의 복합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 기술의 출현
 - 브라질에서는 50% 이상의 차량이 복합 연료 탱크를 구비
- 그 밖에도 수소전지, 전기자동차, 열전지 등의 기술이 유망

◆ Session II :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전략

□ 벵트 오케 룬드발(Bengt-Åke Lundvall) 교수

- Innovation system research and policy -

- 혁신연구는 여타 관련 분야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옴
 - 인도와 중국의 개발전략과 리스본 전략의 키워드가 되었고, 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서 혁신연구에 할당된 자원이 급증
- 성공한 대부분의 혁신 활동은 과학적 요소와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요소들을 결합하고 있음
 - 다만, 사용자 권한의 강화와 수요의 느린 성장이 종종 문제
- 한국에 적합한 혁신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중소기업에 대한 고급인력 지원, 우수한 성과의 확산 등

□ 후지오 니와(Fugio Niwa) 교수

- A Target Analysis of the Japanese National Innovation Syste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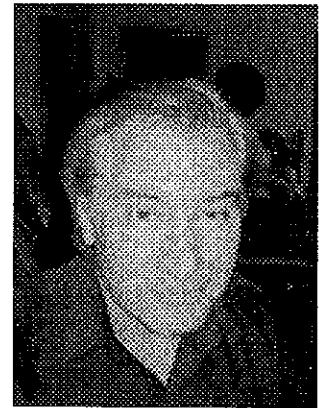
- 국가혁신시스템에서는 목표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
 - 그동안 국가혁신시스템의 목표와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된 바가 없음
- 일본의 경우 조직적인 정책이행을 위해 기초과학과 기술의 계획안을 제정해야 함
 - 공식화에 앞서 기본 계획상의 과학기술정책을 위해 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 일본의 국가혁신 시스템의 이슈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
 - ① 목적과 의미적 구조의 분류 ② 목표 달성의 강화
 - ③ 강력한 관료주의 철폐 ④ 공공 참여의 확장
 - ⑤ 평가의 발전

< 외국 연사 약력 >

◆ Session I : 미래 유망기술 전망

□ 제롬 글렌(Jerome Glenn) 박사

- (현) 유엔대학교 미국위원회 위원장이자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이며 UN미래포럼 회장
- 세계적인 미래학자 중의 한 명이며 과학기술 정책, 경제, 교육, 우주, 예측방법론, 국제 통신 등의 분야에서 미래 연구를 수행
- 컴퓨터 네트워크 기업인 CARINET의 창립자
-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국가전략수립, 경제 개발을 위한 훈련과 평가 등 생산성 관련 국제협력 업무 수행
- 주요 저작 활동
 - Futures Research Methodology(2003), Future Mind: Merging the Mystical and the Technological in the 21st Century(2003) 등 다수



□ 폴 웨보스(Paul J. Werbos) 박사

- (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프로그램실장
- (현) 유엔대학 미국위원회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기획위원
- 미국 에너지성 에너지정보부의 장기전망 분석업무 수행, 국제전기표준회의(IEEE)의 신경망, 에너지정책, 컴퓨터지능, 산업전자 등의 분야에서 위원으로 활동
- 주요 저작 활동
 - Human Settlement of Space: A Strategy for Making It Real, Including New Options for Energy From Space(2006) 등 다수

◆ Session II :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전략

□ 벵트 오케 룬드발(Bengt-Åke Lundvall) 교수

○ (현) 덴마크 올보르(Aalborg) 대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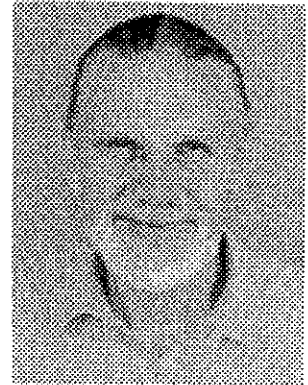
※ 올보르대학 : 직업, 기술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국립대학

○ 국가혁신체계(NIS)의 창시자이며 중국 칭화 대학의 특별 초청 교수도 겸하여 재직 중

○ OECD STI(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부국장 역임

○ 주요 저작 활동

- Asia's Innovation Systems in Transition(2006), How Europe's Economies Learn(2006), Product Innovation, Interactive Learning and Economic Performance(2004) 등 다수



□ 후지오 니와(Fugio Niwa) 교수

○ (현)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교수

※ 정책연구대학원 : 석,박사 과정만 있는 대학으로 공공정책, 지역정책, 개발정책, 문화정책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

○ (현) 일본 국가과학기술정책연구원(NISTEP) 전문위원

○ OECD의 한국 과학기술정책 조사원, 일본 사이타마(Saitama) 대학 교수, 일본 츠크바(Tsukuba) 대학 교수 등 역임.

○ 주요 저작 활동

- Japanese S&T Indicators as a Tool for S&T Policy(2006), A Structural Analysis of World Competitiveness by the IMD(2005) 등 다수